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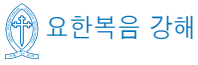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지금은 몇 시 II

(요 7:1-10)

이종윤 원로목사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시어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기를 제안하였지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고, 그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실 것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연히 혹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성경대로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 4:4-5).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때를 ‘때가 차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때가 차다는 말은 이 부분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이 말은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입사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들을 혹 내년에 대학에 입학 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알찬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빨리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임박했으니 하나님께 빨리 일하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유대 땅으로 가서서 자랑을 하고 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계 13:8, 고전 15:3, 행 2:22-

23, 뵤전 1:18-20).

3. 작성된 시간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10절)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대 땅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시간까지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도 작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를 헬라어로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하루 억만금을 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어도 무의미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40세를 살다가든 90세를 살다가든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를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볼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일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현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뿐입니다.

남은 날들의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며 지금은 내 인생의 삶에 몇 시나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분쟁 관련 모든 법적 소송이 깨끗이 취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월) 총회에서 합의는 저희 측은 박노철 목사 측과 서울강남노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모든 소송이나 고발을 취하하고 손해배상 판결금을 탕감해 주는 대신, 서울강남노회는 당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 허락 건과 장로 증원 건을 즉시 허락하여 주고, 박노철 목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이나 고발을 취하하고 총회지도 하에 그동안의 서울교회 분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서울강남노회를 떠나 다른 노회로 옮겨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강남노회 전 노회장들에 대한 총회재판국 고소 건을 곧바로 취하하여 주었으나 서울강남노회는 기대와 달리 당회가 요청한 위 두 청원 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총회는 다시 지난 7월 15일(목) 합의 당사자들을 불러 합의대로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정확한 이행 일정이 확정되어 곧바로 7월 17일(토) 원로목사님 댁에서 박노철 목사의 사과순서가 진행되었고, 이어 7월 21일(수)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 중이던 저희와 박노철 목사 측의 여러 민, 형사 사건들이 취하로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 서울강남노회의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저희의 청원 건을 정식 허락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되면 저희는 박노철 목사 측에 손해배상 판결금 탕감에 관한 서류를 보내 주어 위 합의의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소송취하에 따라 안식년본안 건은 저희가 승소한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통합교단은 물론 목사임기제와 관련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국교계에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점거 손해배상 건도 그대로 확정되어 세상용역을 통한 교회점거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패착이었던지를 많은 분쟁 교회들

이번 소송취하에 따라
안식년본안 건은 저희가 승소한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
한국교계에 커다란 이정표 제시
...

용역점거 손해배상 건도
그대로 확정!
세상용역을 통한 교회점거의 결과
치명적인 패착
많은 분쟁 교회들에게
깊이 교훈으로 남기는 결과를 얻음
...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출교판결도
더 이상 변경 가능성 없이 확정!

에게 깊이 교훈으로 남기는 결과를 얻었고,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국 출교판결도 더 이상 변경가능성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취하와 동시에 즉시 종료되는 민사 건과 달리 박노철 목사 측 용역동원 건과 같은 형사 건은 취하가 되더라도 이는 판결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이와 상관없이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 성도님들의 희생의 결과로 장로교 개혁주의 정통신학도, 우리의 울퉁은 신앙도, 자랑스런 안식년 규정도, 교회건물도, 재정도 조금도 축내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제 주위 어느 누구에게라도 서울교회는 한건의 법적송사도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교회에 나오라, 돌아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특히 각종 고소고발에 휘말려 조사나 재판을 받고 처벌전력까지 남은 분들, 또 피해를 입고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했던 분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하여 용서의 마음으로 과감히 모든 고소 건 취하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도 진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로 교회를 지켜 주신 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밤, 낮은 물론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시간을 바친 분들, 어려운 생활 중에도 옥함을 깨트리며 분에 넘치는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당회를 신뢰하며 묵묵히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 뒷받침 하여 주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당회서기 임상현 장로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반주자 모집

고등부는 반주자를 모집한다.
고등부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9시-10시 20분이며 피아노전공자로 예배 반주와 대면 예배 시 고등부 찬양대 연습을 담당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연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 2. 일정 : 2021.6.1 - 2021.10.31
-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박노철 목사, 이종윤 원로목사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사과하다

박노철 목사는 지난 7월 17일(토) 오전 10시, 이종윤 원로목사 자택을 방문하여 이종윤 원로목사와 서울교회에 깊은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다. 이 자리에는 총회 류영모 부총회장장과 총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 위원대표 이현범 장로, 서울교회 당회원 대표 임상현 장로가 함께 했다.

이번 공식 사과는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측, 그리고 서울강남노회가 지난 6월 21일(월) 총회의 중재로 지난 5년간의 갈등을 종결하기로 하고 여섯 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으며 그 중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의 교회 갈등에 대하여 총회 지도 아래 진정성 있는 유감을 표한다"는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박노철 목사는 먼저 이종윤 원로목사께 "그릇도 못되고 자질이 부족한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서울교회에 불러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목사님과 교회에 깊은 상처를 입혀서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하였다.

오정수 장로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충성하셨는데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드린 것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임상현 장로께도, "분쟁기간에 여러 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무지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던 것 정말 후회가 된다"며 사과의 말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교회 성도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5년의 분쟁기간 동안 저희가 하면 안 됐을 세속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거기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성도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종윤 원로목사는 일만 달란트 빛진 자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다. 오늘 박 목사가 한 말, 변치 말기 바란다. 당신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약속한 것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한다. 꼭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부총회장님이 보증인이다. 보증을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교회 교인들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이 울었다. 지금도 울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경찰서, 검찰청, 법정에 끌려가서 6시간, 7시간 조사를 받고 죄인 취급을



왼쪽부터 류영모 부총회장, 이현범 장로, 박노철 목사, 이종윤 원로목사, 임상현 장로

“

박노철 목사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서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제가 선택을 잘못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을 울렸다"라고...

임상현 장로는

"박노철 목사는 광야공동체 성도들에게 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을 바르게 전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 장로님께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실 때 아무도 반대하는 성도들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서 많이 울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신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아름다운 신자들을 울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을 울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상현 장로는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 교인들을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성도들이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을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오늘 박노철 목사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는 하나님과 박노철 목사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박노철 목사는 열매를 통해 이번 사과가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두로 하는 사과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상처받고 찢긴 성도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박노철 목사는 광야공동체 장로들과 함께 우리 측 교인들의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용서 해주었더니 박노철 목사와 광야공동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용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진정한 의미의 사과

모습들이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잘 전달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상현 장로를 찾아왔던 광야공동체 사람들이 전한 말 중에 공동체 안의 사람들 중 70-80%가 왜 이런 교회의 분열이 생겼는지 모른다, 단순히 목사님을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이 현재 노숙자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고 있다, 도와 달라고 하였다"고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교회가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서울교회 혼란의 원인을 박노철 목사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교회가 재정비리가 있어서 그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니 박노철 목사 당신을 내쫓으려 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은 박노철 목사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분쟁과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교인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을 광야공동체 성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 성도들이 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겠다는 성도들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광야공동체가 되도록 부탁한다"라면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과의 진정성 있는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질책성 부탁의 말이 있었다.

류영모 부총회장은 "이번 제106회 총회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서울교회가 손잡고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이 될 것 같다"며, "끝까지 합의안을 잘 이행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총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 위원대표 이현범 장로(전 부총회장)는 "원로목사님의 보증인으로서의 당부를 잘 지키겠다"고 했으며 "박노철 목사도 오늘 말씀하신 것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참회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노철 목사의 이날 사과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지난 5년간의 상처가 다 봉합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서울교회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약해진 서울교회의 교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부흥에 더욱 힘쓰도록 하자.

글 · 사진 : 유은경 집사(편집부)

202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부서 | 일정 | 시간 | 방식 | 주제 | 지도 |
|-----------------|----------------------------------|---|--|--|------------------------|
| 유년부 | 8.21(토) - 8.22(주) | 주 : 10:30-13:00 | 토: 온라인 주일: 오전 10:30~13:30 대면/비대면 |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 조동수 목사 |
| 초등부 | 7.31(토) - 8.1(주) 8.8(주) | 10:30-15:30 10:30~12:30 | 비대면 (밴드 영상 실시간 중계) |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 이대원 전도사 |
| 중· 고등부 연합 | 7.26(월) -8.1(주) | 월-금: 상시 토 : 13:00-18:00 주 : 09:00-11:00 | 월~토: 비대면 (Zoom, 공유형 플랫폼, 유튜브 생중계 활용) 주: 대면 | 핵심 말씀 : 로마서 12장 2절 메인 주제 : 분별할래? 서브 주제 :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
| 청년부 | 8.14(토) - 8.15(주) | 토 : 14:00-20:00 주 : 16:30-20:00 | 토 : 대면/야외 주 : 대면/야외 | 주제: 새롭게 되는 날 (행 3:19) 부제: 주님 앞에서 연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 | 안용곤 전도사 |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교육일정

| 구분 | 일시 | 교육과목 | 강사 |
|-------|-----------|----------|--------|
| 1차 교육 | 7월 25일(주) | 직분자와 리더십 | 손달익 목사 |

- * 온라인 강의 영상 청취 후 보고서 제출
- * 피택자 1일 영성수련회 : 방역 단계 완화되어 가능할 때에 시행 예정
- * 피택집사 연락처 : 장석남 목사 010-7273-6352
피택권사 연락처 : 박미라 전도사 010-4200-4656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김은호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 5일(목) 여호수아회 조찬기도회에서 성경강해를 한다.

■ 득녀 : 9교구 박재영 성도·연도형 성도 가정 (박동우 집사·백승경권사 장녀) 7월 17일(토)

21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 제출 / 장학생 발표: 8월 8일(주)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이계홍 장로)는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신학생·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극빈자·장애인 등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한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청원서 또는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사진(증명 사진) 2매
5. 자기 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1통
6. 1학기 장학생은 1학기 학업 성적표와 등록금 영수증 또는 사본 위 서류를 7월 25일(주)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발표는 8월 8일(주일) 순례자를 통해서 한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 교구(부서): | | 이름: | |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7월26일 | 월 | 사 18-22 | | 신 1-7 | |
| 7월27일 | 화 | 사 23-27 | | 신 8-14 | |
| 7월28일 | 수 | 사 28-32 | | 신 15-22 | |
| 7월29일 | 목 | 사 33-36 | | 신 23-29 | |
| 7월30일 | 금 | 사 37-40 | | 신 30-34 | |
| 7월31일 | 토 | 사 41-43 | | 수 1-8 | |
| 8월1일 | 주일 | 사 44-47 | | 수 9-14 |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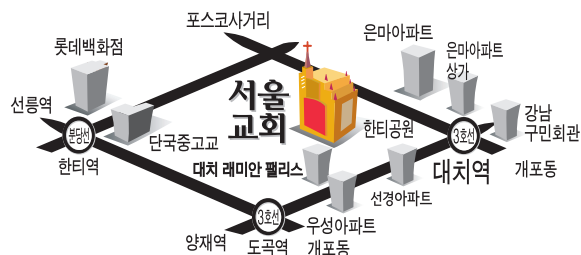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온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 잘 준비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안정적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배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20분 |
| 수요일예배 | I 부 예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월-토) |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피스 길



■ 서울교회QR코드

